

인쇄 문화의 꽃 - 판화의 원류를 찾아 ③

한국고판화학회 제1차 해외 학술답사

# 방산석경 자료 구입 세상 다 얻은 기분



중국 인쇄박물관 내 전시된 모형 가운데 활자판에서 조판하는 모습. 원형의 활자틀에서 일일이 글자를 찾아내 틀에 끼워 넣었다.

### 보국사 고문화 거리

북경에서 하루 밤을 지내고 학술답사 이틀째 되는 날 아침에 일어나니 호텔 밖에서 석탄 냄새가 난다. 중국 호텔에서 난방으로 석탄을 때는 것은 아닌지 중국도 경제 사정이 안 좋기는 해 한가지인 모양이란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방문지인 보국사 고문화거리를 향했다.

중국 북경에는 고미술품 수집처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다. 주로 수집가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판자엔 국제 고물시장과 북경 고완성(백화점 형태)의 고미술상가, 홍차우 시장 고미술품 코너, 양마 고미술품 시장, 조에 고미술품 시장과 보국사 고문화거리. 유리창거리와 전국각지에서 토·일요일 열리는 판자엔 고물시장을 겨냥하고 오는 상인들이 모이는 여관도 있다. 이 여관은 자신 방에 수집품을 판자엔 난장보다 일찍 보여주면서 거래하는 곳이다.

또, 시 외곽에 참고형 고미술품 거리도 형성돼 있다. 보국사 고문화거리는 목요일 오전 6시에 상인들이 난전에서 자리를 펴는 것으로 시작되고 가게 주인들이 그 다음에 문을 열기 시작해서 7시 정도가 되면 시장이 무르익게 된다. 근대 중국 서적들을 비롯한 우표, 돈과 같은 종류의 물품들이 거래되는 고미술 시장이다. 보국사 대웅전이 전폐 박물관으로 바뀌어 있으며, 보국사에는 중국 수장가 협회도 자리 잡고 있다.

중국에는 8000만명에 이르는 많은 수집가가 존재한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와 같이 수집만 하는 사람들을 수집가라 하지 않고 상인들도 수집가 협회에서 활동하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다. 학자·상인들이 격 없이 친한 모습을 자주 목격하게 되면서 우리나라 고미술품 시장의 현실을 다시 한 번 되돌아본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자·상인·수집가들이 고미술품을 사랑한다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서로를 존중하고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필자가 운영하는 고판화박물관이 한국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의 유물 3500여 점을 수집하고, 세계에서 그 유물을 찾아보기 힘든 알찬 박물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등지를 오가면서, 우리나라 전국을 다

### 중국 인쇄 박물관

보국사 고문화 거리를 출발하여 시내 외곽으로 차를 달려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도착한 곳이 중국인쇄학원 내 중국 인쇄박물관이다. 중국인쇄박물관은 중국이 자랑하는 4대 발명품 중 하나인 인쇄 발전사를 한 눈에 보여주는 박물관이다. 인쇄박물관 학예관은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판화라고 하는 당나라 함통 9년(868)에 제작된 <금강경아비라밀경> 번상도가 등판으로 만들어져 부착돼 있다. 이 <금강경>은 둔황 석굴에서 발견되어 영국 대영 도서관에 소장돼 있다.

정문을 열고 들어가자 관광지하 많은 직원들이 고판화학회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 로비에까지 나와 있어 인쇄박물관의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뭉클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아시아 최초로 열린 세계박물관총회로 인해 다른 나라의 박물관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나라 박물관에 대한 위상이 높아진 점을 실감한 적이 있다. 이번 인쇄박물관을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던.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었던 인쇄박물관 학예관은 지난 상해 세계박물관총회와 관련해 인문로 우리 일행을 삼갑게 안내해 주었다. 환영행사를 마친 후 학예관의 전시해설을 통해 전시실을 안내 받았다.

중국 인쇄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디오라마와 실물 자료를 통해 이해할 수 있는 전시 모형이 잘 준비된 박물관으로 인쇄학원 학생들이 박물관을 통해 공부할 수 있도록 전시돼 있다. 특히 근대 인쇄유물도 전시돼 있어 중국에서 만들어진 인쇄문화가 실크로드를 통해 서양으로 전달됐고, 전달된 중국 인쇄문화가 업그레이드돼 다시 중국으로 전해지는 것을 보면서 문화는 돌고 돌아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인쇄박물관에는 점토를 이용해 활자를 만들어 지식의 대중화에 기여한 필승(畢昇; 990~1052)의 모습이 모형으로 만들어져 있었다.

### 유리창과 영보재

인쇄박물관 관람을 마치고 조선 선비들이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 오매불망 가고 싶어 했던 유리창 거리를 방문했다. 청나라 수도 북경에 여행사질이나 외교사절로 온 선비들은 업무를 마치고, 당시 첨단 정보센터 역할을 한 유리창으로 달려갔다. 대표적인 선비들이 유득공 박지원 박제가 김정희 허균 등이다.

유리창에는 고판화 관련 중요한 기관이 있다. 중국 국영기관으로 수인판화 생산지로 유명한 영보재(榮寶齋)이다.

채색판화는 중국에서 명나라 말기 1627년 호정연에 의해 만들어진 십죽채화보로부터 시작했으나 이를 가장 발전시킨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에서는 우키요에라고 하여 서양의 고흐나 마네 모네 등 인상파화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중국에서는 일본의 우키요에 앞서 자신들이 판화 종주국이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수인판화 전통과 더불어 연화(年畵)의 전통 복원에 많은 역량을 집중했다.

이러한 곳 중에 하나가 영보재이며, 이곳에서 생산되고 있는 수인판화를 특화하고 있어, 북경 여행자들의 주요한 관광코스 가운데 하나이다. 영보재는 현재 컬러 인쇄판이 4000여 종을 비롯한 수만판을 소장하고 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생긴 후 전통 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영보재는 목판 수인(木版水印)을 모델로 이용한 중국 전통인쇄법을 발전시키고자 결성했다. 이후 광말약, 서비홍 등의 관공과 지원 아래 숙달된 장인을 모아 몇 년 동안 노력하여 목판 수인 기술을 신속히 발전시켜 고급 명화 200여 종을 인출했다.

1960년대 이후 목판 수인은 대형화되고 정밀하게 발전했다. 대형화로는 정판교의 난죽도, 서비홍의 군마도가 있다. 정밀한 것으로는 오대 고굉중의 한희재 야연도 등이 있다. 한희재야연도는 각판 1667개를 가지고 6000여 차례 인쇄해 전 후 8년 동안 고된 작업 끝에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한다. 우리 일행은 친절한 안내 직원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중국이 자랑하는 수인판화의 전과정을 자세히 답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채색판화는 처음에는 부채본(敷彩本)이라고 해 검은색으로 그림의 윤곽을 인쇄한 후 다시 손으로 색을 칠하는 방법이다.

수대 대업(大業) 3년(607)에 만든 불화가 부채본 작품이다. 둔황에서 출토된 오대 시기의 불화 판화에도 부채본 방법으로 만든 작품이 있다.

다음으로 투인본(套印本)으로 복층시기 지폐인쇄가 칼라인쇄 기술의 참신적 역할을 했다. 현재 볼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투인본은 원대 지정원년(1341)에 증흥로 자복사에서 각인한 <금강경주>이다.

이 책은 경질정도로 붉은 색과 검은 색 두 가지 색으로 컬러 인쇄했다. 현존하는 최초의 2색 컬러본 서적이다. 컬러 인쇄의 정점을 이룬 것이 또우판(수인판의 일종) 인쇄본으로 목판 채색 인쇄로 '목판 수인'이라고도 한다. 기본 인쇄판 위에 다양한 목판으로 색깔을 인쇄하는 방법이다. 가장 유명한 인쇄본은 명대 호정연의 십죽채화보와 십죽채 전보이다.

글=한신학 고판화박물관장  
사진=황진·박도화·배남경·정찬민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 인쇄박물관 벽에 '금강경' 동판 번상도 부착

보국사 대웅전은 전폐 박물관으로

국영 영보재, 수인판화 전통복원에 주력

학자·수집가·상인 상호존중 교류활발

니면서 수집하는 상인들의 도움 없이는 모을 수 없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권희 교수·박도화·정병모 교수 등 관련학자들의 고판화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고판화박물관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집가, 상인, 학자들이 서로를 존중해 주는 원활한 소통이 이뤄진다면 우리나라 문화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고미술품 수집은 보물찾기에 비유되기도 한다. 옛날 물건 속에서 빛나는 문화유산을 발굴해 내는 작업이 때문이다. 보국사 문화거리에 아침 일찍 답사단 일행이 도착해 많은 옛날 물건 속에서 중국 고판화 유물을 건져내고자 흠뻑여져서 살살이 살펴보기 시작했다. 전폐박물관으로 전용된 보국사 대웅전을 중심으로 골목골목마다 옛 물건 난장이 펼쳐져있다. 혹시나 자신들이 연구하는 데 필요한 보조자료인 책이나 고판화 관련 유물을 구해 보고자 뛰어다닌다.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를 돌고 있던 차에 옛날부터 안면 있던 상인들이 하는 가게구역으로 들어서면서, 서로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자료의 행방을 묻고 가게 안을 매의 눈으로 살펴본다.

그 때 마침 어제 답사했던 운거사의 석경 영인본이 눈에 띄었다. 방산석경을 중국불교협회에서 전집물로 만들었지만 서적에서는 절판되어 찾을 길이 없는 자료였기 때문에 2년 전 중국불교협회가 있는 광저우를 방문했을 때 한 권을 증정 받은 적이 있어, 석경 영인본이 쉽게 눈에 띄었고 반갑기가 이를 데 없다. 방산석경 책을 들고 가격을 묻자, 중국 상인은 방산석경의 원본이라고 세 목치 원고 목지를 더 보여주었다. 원고본은 책을 발행하기 전 교정본이며, 근대유물을 수집하는 품목 중에 굉장히 귀중한 유물 목록에 들어간다. 석경에 탁본을 하고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 파일로 만들어서 줄여서 청사진으로 만들어진 교정본이다. 한 장 한 장 넘어갈수록 편찬 위원들의 글씨가 선명하게 빨간색으로 쓰여 있다. 한마디로 보물찾기를 한 기분이다. 상인에게는 내색하지 않은 상태로 가격 흥정에 들어간다. 흔히 고미술품 거래를 진검 승부라고도 한다. 포커를 할 때 포커페이스와 같이 고도의 심리전이 라고 할 수 있다. 가격의 흥정을 마치고 유물이 손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을 느끼게 되고 수집가들은 더욱 보물찾기에 매료하게 된다. 방산석경 원고본은 이제 고판화박물관의 주요한 소장품에 속하게 되고, 석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 이번 학술답사의 중요한 성과로 남을 것 같다.